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83
----------	----

발의년월일 : 2006년 12월 14일

발 의 자 : 심준홍의원 외 6인

1. 주 문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계획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촉구를 강력히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가. 대전도시철도는 우리 시의 원활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1호선 건설공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2호선 건설이 절실한 실정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05. 6월, 2호선 건설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수행을 마친 상태임.
- 나.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편향된 기준과 평가방법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충청권에 대한 홀대이며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150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의결하여 각계에 건의하고자 함.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

대전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1989년 직할시 승격이후 도시규모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구 유입과 자동차 증가율이 전국 6대 광역시중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쾌적한 도시교통망 확충과 미래수요 대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대두되었으며, 최근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전시에서는 대전발전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3개 노선을 구상하고 그중 1호선을 지난 1996년 10월에 착공, 2006년 3월에 1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2007년 상반기에 나머지 2단계 구간을 개통목표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교훈삼아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1호선 건설의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2호선 건설의 부푼 꿈과 함께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건설 계획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편향된 기준적용과 평가방법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는 지난 17년간 표류해온 장항산업단지 착공지연과 더불어 가뜩이나 피해해진 충청권에 대한 홀대와 푸대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제반 여건이 비슷한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우리 시 계획과 동일한 경량전철(LRT) 2호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지나친 정치논리에 의한 특정지역 현안 챙기기의 산물로 판단되므로, 현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허울 뿐이라는 비난과 함께 강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우리 시가 제출한 건설계획안대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150만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6. 1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자

1. 기획예산처장관
2. 건설교통부장관
3. 대전광역시장
4. 선병렬 의원
5. 권선택 의원
6. 박병석 의원
7. 이상민 의원
8. 김원웅 의원